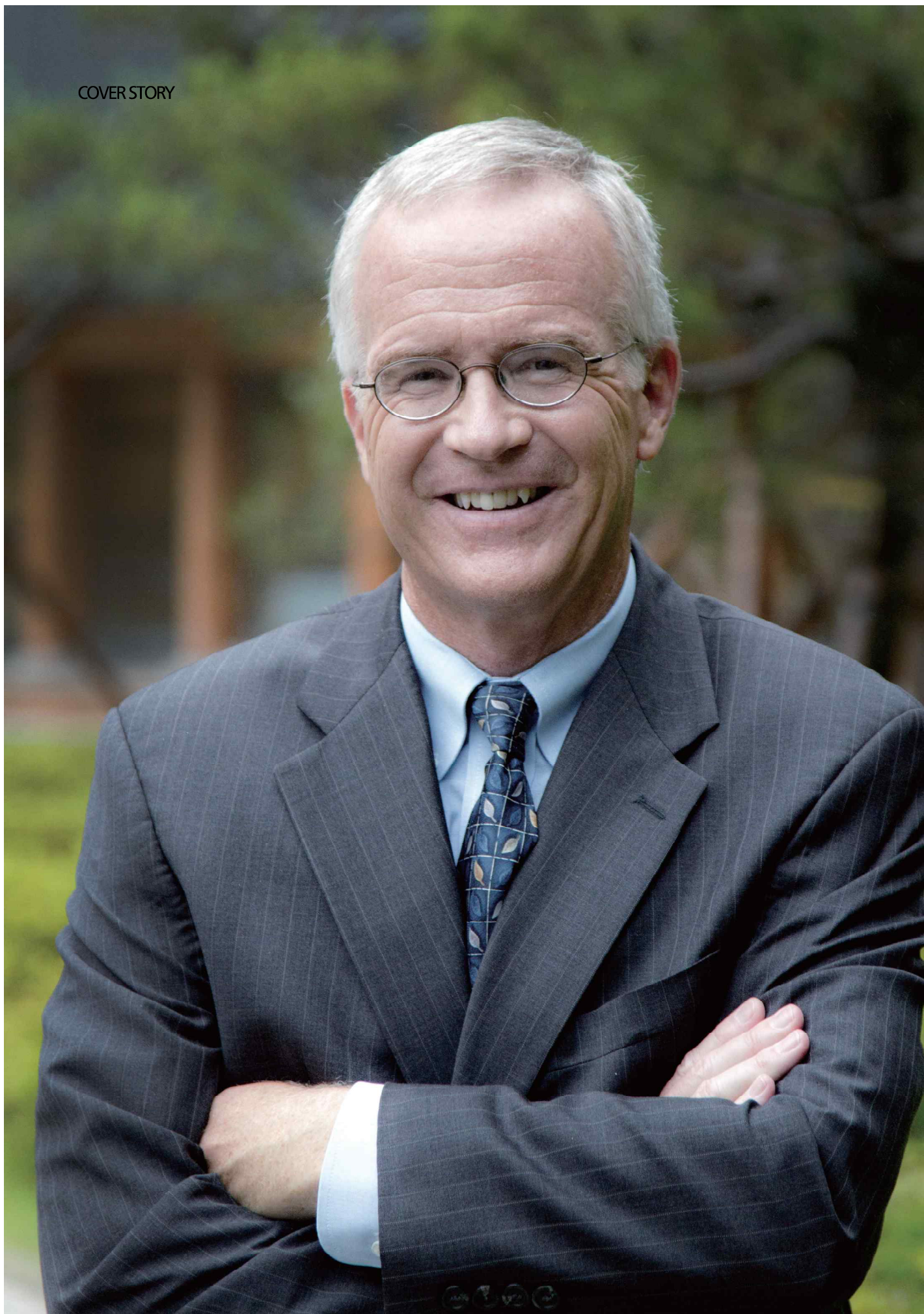



COVER STORY



시대를 이끄는 기독교 법률가

##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은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의 루이스 브랜다이스 석좌교수이다. 카슨-뉴만 칼리지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로클릭과 로펌 변호사 생활을 거쳐 1980년대 초부터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불법행위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그는 기독교법률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이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Yale University Press, 2001) 등 다수의 기념비적인 저작을 편집하였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법·종교·윤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페퍼다인 로스쿨의 학생들은 그를 ‘가장 인기 많은 교수(The most beloved professor)’라 부르기도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세미나실에서 한동대, 백석대 법학부 교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인터뷰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로버트 코크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인터뷰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래 전부터 꿈꿔왔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네요. (웃음)

이렇게 사려 깊은 그룹과 함께 하게 되어 저도 참 좋습니다. 특히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진지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가라는 직업과 제 신앙 사이의 관계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 4연방 항소 법원의 직원으로 몇 년 일했고, 그 후 5년 동안 로펌에서 법실무에 종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강의하는 과목은 불법행위법, 법조윤리, 그리고 법과 종교 등입니다. 페퍼다인에서 많은 것을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는 법률구조 상담소(Union Rescue Mission Legal Aid Clinic)였습니다.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숙자 등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지요. 또한 법·종교·윤리 센터의 소장으로서 기독교신앙과 법실무를 연결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어요. 또한 이를 통해서 법률 분야에 기독교적인 비평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독교법률가들에게 요구하시는 시급한 요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법률가들을 필요로 하는 분명한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일 때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느낀 건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 다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들은 법률 상담을 훨씬 넘어서는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도움들에는 심리적인 것 의학적인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기독교 노숙자 보호소나 그와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기독교적 법실무의 훌륭한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전체 영역을 채워주자는 거예요. 기독 단체들과 협력해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또 비교적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신앙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미국 내에서 이미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스도인법률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가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소송에서 기독교적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1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졌던 Christian Legal Society Case<sup>1</sup>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지요. 일반 대학인 캘리포니아주 헤이스팅스 대학 내 모든 단체가 종교를 근거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게 최종 판결의 골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학생의 종교 단체 가입에도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얼핏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이 계속 확장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엔 국가가 기독교 대학들에게 종교적 특성을 고집하지 말라고 요구하

는 수준에까지 이를지도 모르거든요. 이 사건은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의 문제였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지요.

기독 법률가로서, 평범한 일상 활동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윤보다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기독교적 법실무에 관해 정리하자면, 법률가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묵상하고 그것이 인생 전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약 10년 전에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을 시작했는데, 크리스천 로스쿨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 로스쿨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지니아 로스쿨은 주립 학교로서 세속적인 법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배경에서의 법학 교육과 다르지 않나요?

로스쿨 3학년 때 만난 톰 셰퍼(Tom Shaffer)라는 교수님

1. Christian Legal Society Case : 헤이스팅스 법대 내 한 기독교 단체가 회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선언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동성연애를 포함하여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학생들의 가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학교 측은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의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이에 대해 이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연방 법원과 대법원이 학교 편을 들어줌에 따라, 학내 기독교 기관들은 그 리더십에 요구되는 기준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얘기를 해 볼게요. 일반 대학에서 크리스천 법학교수의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분이 ‘종교와 법 (Religion and Law)’이라는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1970년 중반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수업 첫 날 교수님은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왜 이 수업에 관심이 생겼는지 물어보셨어요. 수강 동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참여한 수강생들의 기독교적 배경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었어요. 가톨릭, 여러 종류의 개신교, 알미니안, 메노나이트, 감리교도 등... 나중에 교수님은 “어쨌든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니까, 누가 기도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침묵이 있었죠. 그곳에 비기독교인이 있었다면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흥미로웠고, 그 때부터 제가 법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법률가라는 직업의 성서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해주셨던 거죠. 어쨌든, 일반 대학에서도 크리스천 법학 교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의 주강사인 리트윈 박사(휘튼대학교 전 총장)의 구분에 따르자면, 제가 근무하는 페퍼다인 대학교는 포괄 모델(Umbrella Model)에 확실하게 들어맞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한 한

동대학교는 체계 모델(Systemic Model)에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대가 포괄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웃음)**

저는 체계 모델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포괄적인 모델의 로스쿨은 세속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이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 포괄 모델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압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페퍼다인 로스쿨은 포괄 모델 대학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더 큰 존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포괄 모델이, 기독교적 모델에 몰타기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나름대로 가치 있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로스쿨에는 정통파 유대교도인 사무엘 레바인 (Samuel Levine, 현재는 Touro college law center 재직) 교수 같은 동료들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구약성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했죠. 물론 부딪치는 갈등들도 생깁니다. 가령 교수 임용 문제 관련, 몇몇 사람들은 다른 비기독교인 교수를 더 많이 임용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와 같은 대화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더 기독교적인 대화를 하며, 비전을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하는

교수들 의견은 다르겠지요.

수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대다수가 기독교인일 때, 혹은 그 반대일 때 마주치게 되는 도전들은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주제를 피상적으로 다루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깊은 수준으로 관련 내용을 깊고자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헤매게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초점 맞춘 전문 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상 가르쳐온 과목들 이외에 두 과목을 더 가르쳤는데, 그 중 하나가 ‘전문 법조인의 신앙과 윤리’입니다. 수강생들은 이 제목으로부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다루는 과목임을 알게 될 거예요. 나아가 강의 개요를 통해서는 특히 기독교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이후 ‘법률적 사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과목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기독교적 법이론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마이클 맥코넬(Michael W. McConnell) 교수 등과 함께 같은 이름의 책으로 만들기도 했지요.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는 포괄 모델의 대학에서도 그리스도인 교수들은 기독교적인 강의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밖의 다른 과목에서도 그리스도인 법학 교수들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문제로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률가직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접근이 기독교적 법학 연구의 영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셉 알레그리티

(Joseph Allegri) 교수의 『법조인의 소명』(Lawyer's Calling, IVP 역간)과 같은 책이 많이 읽혔었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법을 바라보는 이론이나 설명이 보다 더 풍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법학자들의 다음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 법학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리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책을 저술하면서 카톨릭, 루터파, 칼뱅주의, 침례교파의 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상당히 폭넓게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특정 종교의 전통을 바라보면서 법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내부의 특정 전통을 기반으로 한 법학 연구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넓은 기독교 법학의 관점에서, 가톨릭적 자연법 전통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는 기독교 법학자가 실정법 비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입장 중 자연법 이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연법 이론은 법을 바라보는 가톨릭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솔직히 저는 성서로부터 자연법 이론의 통찰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주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자연법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성서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통찰은 자연법과 성서를 모두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법학자들이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법 이론의 가치 중 하나는 우리에게 토론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전통들, 즉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전통들, 또

는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법이나 정치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20~30년 동안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차이점이 상당히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동등한 인간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늘의 법을 나누는 것이 공통된 정치적, 법적 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과 같은 기본법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저도 불법행위법을 가르치는데 신앙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연결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법학교수단체(Law professors' Christian fellowship)'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컨퍼런스도 열고, 거기서 주로 학술적, 직업적 토론을 가져왔습니다. 첫 해에 가톨릭 신자인 노트르담 로스쿨의 제라드 브래들리(Gerard Bradley) 교수가 신용장<sup>3</sup>에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 가르침, 그리고 훈련에 친숙하지 않은 채로 특정 주제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명확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불법행

위법을 가르칩니다. 아퀴나스나 다른 사람들은 정의의 다양한 형태들과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경에서도 사회 속 불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들, 곧 정의와 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성경과 불법행위법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법행위법이 단순히 그 요건이 무엇이고 적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불의를 바로잡는 법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s' 라는 책에서 저는 가톨릭의 보충성원리<sup>3</sup>와 칼뱅주의의 영역주권론<sup>4</sup>의 입장을 기초로 불법행위법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불법행위법에서 적어도 가족과 종교 집단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노력해온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법적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적 면책제도들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연결 고리를 발견했던 한 가지 예입니다. 불법행위법의 전체적 경향이 중간 집단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쪽이기 때문에, 영역주권론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을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문제지만, 중간 집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더 파고들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 
3. 보충성 원리: 초국가기구와 연방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자세
  4. 영역주권론-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분야에 나뉘는 영역에 합당한 주권이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로서 학문과신앙연구소장이기도 하다. 헌법 및 법사회학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한정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 일차적 결실을 담아 『헌법(책세상, 2010)』을 출간하기도 했다.